

2017년 3월 31일, 조천읍 신촌리 동동노인정, 강수경 조사.
박원림(남, 1935년생, 조천읍 신촌리)

- 줄거리: 신촌리에 힘도 세고 키도 큰 어른이 있었다. 하루는 동네에서 놀다가 오는데 어느 올레에 들어서니 앞에 여자가 어지르면서 쫓아오라고 하듯이 하였다. 그 여자를 따라서 오다보니 연자방아 있는 곳까지 왔는데 연자방아를 빙빙 돌리고 있었다. 그제서야 도깨비에 홀린 걸 알아채서 손에 피를 내고 정신을 차렸다.

[제보자] 여기 살아난 그 종수아방게. 종수아방 이디 살 땐 디. 저 그 하르방 막 기운도 썩곡 키도 크곡 원 귀신이엔 헌 건 원 놀래질 안 허는디. 저 서카름 간 놀단 오 단 보니까 여기 오나네. 여기가 아니고 저 저 누게 동림이네 명현이네 올레, 그 디 도체비 난덴 헤낫주게. 쟁 그디 오니깐이 사름이 앞이 여자가 어지리멍 쫓아 오렌 허듯이 그냥 치메저고리 입은 여자가 경 허더라 이거라. 게난 오는 게 여기 몰방에가 잇어났어.

연자방에엔 헌 거. 바로 여기. 겐 이레 들어간 허니까 그레 들어간 곶이 좇안 들어가니깐이. 아. 그 (웃음) 하르방이 쫓아들어오렌 헌듯이 허멍 그냥 그 몰방에 빙빙 돌아렌. 빙빙 돌려렌. 아. 경 헨 허난 하르방이 이게 아니. 정신 바짝 출런 보니깐이 도체비 만나젓구나. 헛게 만나젓구나 헨 바짝 출령 손인가 니굽인가 영 행 피 나니깐이. 피 나불은 거 정신 난덴 허주게. 게난 아무 것도 그게 엇어져 불언. 엇어져 불언. 경 행 정신 출령 집이 갓젠 헤나고.

그 하르방 뭐 산 때 자꾸 이디 앓앙덜 모영 놀 때 그런 우스겔 들어났주. (웃음)

[조사자] 아. 도체비 보든 피 나불은.

[제보자] 피나 불은. 핏내 말이든 그냥 돌아나분덴 허여.

[청중] 또 그런 구신 보든 또 무신 거 돌도 모사그네엥 그 돌궤루 말아불민 돌아난덴 허곡.

- 핵심어 : 도체비, 도깨비, 치메저고리 입은 여자, 몰방에, 연자매, 핏내, 하르방, 피냄새